

인도 소매유통시장 단일브랜드 100% FDI 허용

□ 인도 정부, 단일 브랜드 개방 우선 시행 결정

- 인도 산업정책촉진국(DIPP)은 1월 10일 정책 고시를 통해 인도 소매유통시장의 단일 브랜드 사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FDI) 100% 허용 확정을 공표함.
 - 이에 따라 인도 소매유통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단일 외국 브랜드는 100%의 투자를 통해 100% 소유권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.
 - 이번 단일 브랜드 100%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정책의 목적은 외국기업의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한 인도의 일반 소비자 제품의 공급 개선, 인도 기업의 글로벌 기준 도입과 기술경영경쟁력 향상을 통한 인도 상품의 공급 활성화에 있음.
 - 이에 따라, Ikea, 루이뷔통, 카르티에 및 롤렉스와 같은 생활, 패션 및 명품 브랜드 위주로 인도 진출 준비를 한 단일 브랜드 기업들의 투자 러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.
- 인도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각료회의에서 100% 단일 브랜드 FDI 허용안과 함께 멀티브랜드에 대한 51% FDI 허용 방침을 발표했으나, 월마트, 테스코, 까르푸와 같은 대형 멀티브랜드의 100% 진출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정책이 보류됨.

- 인도 정부는 2012년 3월 말까지 주 정부 선거이후 의회동의를 얻어 멀티브랜드에 51% FDI 허용정책 발표할 예정임.

□ 단일 브랜드 100% 투자진출 조건과 절차

- 인도 정부는 지난 11월 정책 공표 내용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부 조항을 신설함.
 - 단일 브랜드 소매유통 매장을 오픈하는 모든 외국업체는 최소 30% 이상 인도 중소기업 상인에게 공급받아야 함.
 - 이 조항은 예전의 애매한 조항을 분명히 한 것이며, 중소기업 산업을 공장설비 투자규모 100만 달러이하의 사업체로 정의
- 단일 브랜드 소매유통업 신청은 DIPP의 산업지원사무국을 통해서 접수해야 하며, 판매할 제품과 제품군이 명시되어야 하고, 신고된 제품군 외에 다른 제품판매를 원할 시에는 새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.
 - 신청절차와 심사는 DIPP를 통해 이뤄지지만 외국 투자진흥위원회 (Foreign Investment Board)가 최종 결정통보

□ 시사점 및 전망

- 소매유통 컨설팅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현대식 기업형 소매유통시장은 260억 달러 규모로, 이 중 단일 브랜드 소매업은 25~30%의 비중을 차지하나, 향후 5년간 200억~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.
 - 인도 정부는 지난 5년간 단일 브랜드에 대해 51% FDI만 허용, 이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진 FDI는 4,400만 달러 규모임. 이는 전체 유입액 0.03%에 지나지 않았음.

- 단일 브랜드 100% 허용 정책을 신속히 실행하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은 적극적인 FDI 유입을 통한 경제성장률 개선에 있음.
 - 만모한 싱 총리는 최근 2011/2012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전년도 8.5%에서 하락한 7% 수준이 될 것임을 발표함.

- 싱 총리는 이에 앞서 FDI 도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장률 개선이 가능함을 강조해 왔으며, 인도 정부의 멀티브랜드 유통시장의 51% 개방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수차례 언급한 바, 이번 단일 브랜드 정책 공표 이후 3월 말을 기점으로 동 정책 도입이 실현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【뉴델리사무소 제공】